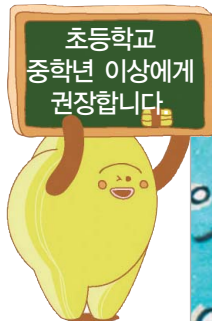


5) 메기와 두꺼비 이야기



이 동화는요

오랫동안 자식이 없던 두꺼비 부부는 자식을 낳고 기뻐합니다. 역시 자식이 없던 메기 부부는 두꺼비 부부의 자식인 올챙이들을 두꺼비 부부에게 말도 없이 집으로 데리고 와 키웁니다. 두꺼비 부부는 올챙이들이 모두 없어진 것을 알고, 수소문하다가 메기 부부네 집에서 들려오는 아기들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을 사또를 찾아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웃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때 지혜로운 청개구리 노인은 올챙이들에게 다리가 나올 때를 기다려 올챙이들이 개구리의 자식임을 증명합니다. 결국 두꺼비는 자신의 자식들을 되찾고 메기 부부는 벌을 받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어린이들은 남의 소중한 것을 탐내거나 빼앗으려고 할 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고, 이웃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도와주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동화를 본 후 어린이들은

- 다른 사람의 소중한 것을 탐내거나 빼앗으려는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이웃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도와줄 수 있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동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메기 부부는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잘못을 감추었나요?
- 다른 동물들은 왜 두꺼비 부부를 돕지 않았나요?
- 청개구리 할아버지가 두꺼비 아내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기다리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메기 부부가 진흙 속에서 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알아봅시다.

- 구억(guoc)에 대해 알아보시다.

Tip!

‘구억’은 베트남 사람들이 신는 신발로, 나무를 깎아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등나무 껍질로 만든 끈이 달려 있고 발가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발 앞쪽이 뾰족하게 말려 올라가 있습니다. 흔히 아무런 색칠을 하지 않고 나무 무늬를 그대로 살린 것을 ‘구억목(guoc moc)’이라고 하고, 겉 표면에 꽃무늬를 새기거나 다양하고 화려한 색칠을 하여 광을 낸 신발을 ‘구억성(guoc son)’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발은 베트남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무더운 열대 기후에서 논에 밭을 담그며 농사를 짓거나 배 위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베트남인들에게는 신발을 신지 않는 것이 더 편하기도 합니다. 기록에는 10세기 말 레다이한 왕도 맨발로 다니는 것을 좋아하여 백성들도 왕을 따라 모두 맨발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귀족들은 주로 가죽신을 신었지만 왕을 알현할 때에는 반드시 신을 벗고 입궁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구억만큼은 수천 년 전부터 베트남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신발입니다. 한동안 각종 슬리퍼와 현대식 신발에 밀려 자취를 감추었던 구억은 최근 대도시를 중심으로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단지 발을 보호해준다는 기능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취향과 개성에 맞춘 다양한 무늬와 화려한 디자인을 결합시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참고: <http://www.chaovietnam.co.kr/>)

- 베트남의 유치원 (Trường mầm non)에 대해 알아보시다.

Tip!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교육열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상당수의 가정이 소득의 절반 이상을 교육비로 투자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 정부는 특히 기초교육과정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 덕분에 유치원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은 2세까지의 아이들이 다니는 나째(Nha tre), 3세에서 6세까지의 아이들이 다니는 '머우야오(mau giao) 또는 쩡멍농(Truong mam non- 새싹학교) 등과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아를 위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7년 현재 호치민 시에는 약 600여 개의 공립 유치원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사립 고급유치원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국제유치원의 수 역시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의 높은 교육열과 베트남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참고: <http://www.chaovietnam.co.kr/>)

- 베트남에서 잘 볼 수 있는 동물들에 대해 알아보시다.

Tip!

베트남은 열대 우림 기후이므로 동식물의 생태가 한국과는 사뭇 다릅니다. 특히 도마뱀, 뱀, 지네, 두꺼비 등 한국 사람들이 흔히 '징그럽다'고 생각하는 동물들을 베트남에서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가령, 도마뱀은 베트남 가정집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데, 파리나 모기 같은 해충을 잡아먹는 고마운 동물입니다. 성격도 온순해서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뱀도 베트남에서는 자주 볼 수 있는데, 특히 목 부위가 붉은 뱀은 신성시된다고 합니다. 개구리와 이구아나 등의 파충류 역시 많이 볼 수 있는 동물입니다. 이 외에도 큰 지네나 풍뎡이 등 곤충들 역시 자주 만날 수 있는 동물이고, 왕풍뎡이의 경우에는 꼬리 부분을 튀겨서 간식으로 먹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곤충이나 파충류를 음식으로 만들어 먹습니다.

이것은 베트남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연 환경과 어울려 살아가면서 터득한 삶의 방식이자 존중받아야만 하는 고유한 문화입니다. 간혹 어린이들 중에는 이런 동물을 보고 베트남이 더럽다거나 지저분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태도입니다. 한국의 문화가 다른 문화권 사람들에게 존중받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의 문화 역시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맙시다.



체험해 봅시다.

- 두꺼비 부부를 도와주지 않았던 다른 동물들이 어떤 생각을 하였을지 말풍선을 넣어 그림으로 표현해 봅시다.
- 청개구리 할아버지와 같이 공평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 그런 마음을 기르기 위해 노력할 점을 적어 봅시다.



참고자료

- 두꺼비의 특징: 수정 후 13일이 되면 올챙이가 되고, 82일이 되면 두꺼비의 모습을 하게 됨. 산란기에는 강이나 늪에 모여들고, 이 시기 이외에는 습한 곳에서 생활함. 한국에서는 집을 지키고 재물 복을 가져다주는 동물로 여겨짐.
- 메기의 특징: 하천 또는 호수의 진흙 바닥이나 늪에 살며, 몸통의 앞부분은 원통형이나 뒤로 갈수록 옆으로 납작해지며 가늘어지는 모습을 하고 있음.
- 베트남 관련 책
 - 김현아(2009) <베트남 이야기>. 아이세움
 - 곰돌이 CO(2009). <베트남에서 보물 찾기>. 아이세움
 - 김영희(2009). <신짜오 베트남 태권팔찌와 베트남콩쥐>. 한설수북
 - 클레어 엘리스/김양희 역(2005). <베트남>. 휘슬러
 - 조재현(2004). <베트남 들여다보기>.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부싯 튀이/배양수 역(2002). <베트남 베트남 사람들>. 대원사
- 김종대(2010). <옛것에 대한 그리움>. 휘닉스드림 (한국의 전통 문화 속 물건들)
- 베트남의 여러 분야에 대한 최근 경향과 소개를 볼 수 있습니다.
<http://www.chaovietnam.co.kr/>